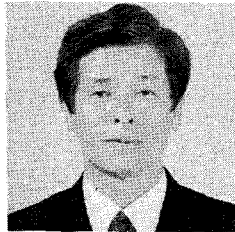


최근의 낙농동향을 보면서



유제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

꼭 1년전 2만톤의 분유재고 처리에 각 유업 회사마다 전사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더위도 있고 휴가도 없이 얼마나 애를 썼던가 기억도 새롭다. 2학기 개학과 더불어 9월부터 모자라기 시작한 원유는 원유쟁탈전이 일어나고 분유는 없어서 난리고 이처럼 낙농의 방향을 중 잡을 수 없는때는 없던 것 같다.

낙농의 백년대계는 커녕 일년사이에 원수처럼 무겁게 쌓여 있던 분유며 수유를 무슨수로 든지 기피하려던 원유가 턱없이 모자라게 한 주범은 어디로 도피했단, 말인가. 재고 분유를 목장에 강매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저능력 유를 도태시키라고 권장한 자는 왜 말을 못하고 숨어 있다. 공해니 폐수단속에 상수원의 오염이다. 목장의 목을 꼭 졸라맨 자는 누구란 말인가.

허구한날 수입개방이니 UR이니 당장 파산될 것처럼 대책회의, 각종세미나, 심포지움에 메스컴을 통해 의욕을 상실케하여 목장을 자동 폐업하도록 한사람들은 어디에 있단 말

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두눈을 부릅뜨고 살펴 봐도 외국사람이 아닌 한국의 하늘아래 우리의 행정당국, 유업체, 단체, 학계, 낙농가, 소비자, 우리들 자신의 책임때문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옛속담에 집안살림 망하면 조상탓으로 돌린다는 것처럼 아무 노력도 해보지 않고 잘못된 일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풍토는 지향되어야 한다. 하여간 이짧은 기간에 대명천지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원유수급 차질의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전반기 8천톤 후반기 7천톤의 수입분유로 처방하려고 하니 낙농의 전망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 무더위 행락지에서는 물가는 하늘처럼 치솟고 부르는 것이 물건값 아닌가. 살아 있는 젖소 끼니 굶길수 없고 똥치고 젖 짜는 이 마음놓고 그러한 곳에 휴가를 즐길수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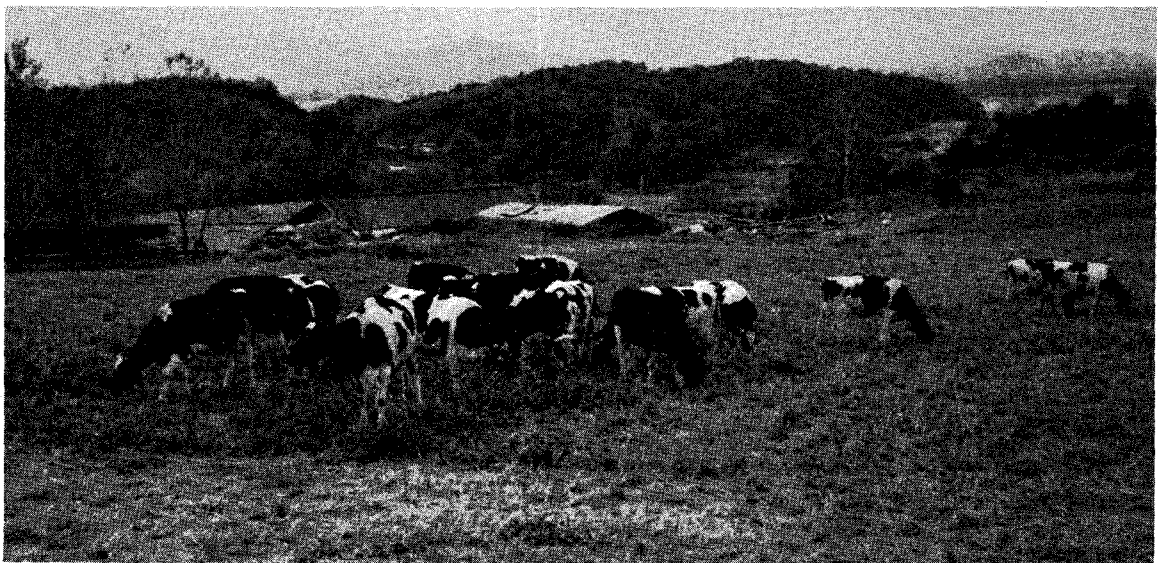
파리, 모기, 분노냄새속에 365일 똑같은 노동의 댓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목장경영주는

투자한 만큼의 이윤추구에 있고 최일선의 목부는 사명감이나 희망같은 것은 만족할만한 월급을 받은 이후의 문제다.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큼의 급료에 보다 문명혜택을 받기를 원치 않는 목부는 없을 것이다. 몇년전만 해도 목장의 사장이 되겠다는 희망과 일념에 충만해서 열심히 일했고 실제 많은 사례가 있었다.

이제는 다 글렀다. 땅투기군에 의해 시골할 것 없이 뿔대로 뿔 땅값이며 모든것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목장의 푸른꿈 실현은 커녕 생각도 못하게 된 현실이다.

아무튼 목장에서 신성한 땀의 보상은 주인에게는 이윤의 추구요 목부에게 합당한 급료다. 그 주된 수입원이 어디에 있겠나. 유업체에 납유된 원유의 유대에 의존된다. 그외에 약간 있다면 분만되는 송아지의 판매대금 또는 육성우의 판매대금이다. 수입은 쥐꼬리만한데 지출은 나팔통이라 높은 인건비에 사료비, 건초, 엔실리지비용, 목초와 사료작물의 종자, 파종비, 진료비, 인공수정비, 농기계기

구 구입, 수리비, 광열비, 제세공과금, 공과제 잡비등 그간 오르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유대인상을 당초 10%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었다면 목장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조금은 원만하게 되었을것이다. 목장의 주 수입원인 원유대를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울 3.4%기준 1kg 당 364원에서 5.2%인 19원을 올려 383원을 받고 있다. 원유 1kg을 200ml로 환산하면 76원 60전으로 우유공장에 팔려진다. 공장에서 수유검사등 살균처리포장및 냉장후 공장도가격이 종전가격에서 평균10% 올린 145원으로 보급소에 인도되고 있다. 가정배달 가격은 240원, 상점판매가격은 260원으로 적정소비자가격이라고 일선보급소장과 판매원에게 또 소매점 주인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유의 가격안정과 원유및 시유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것을 전국유업회사 공동명의로 모든 신문에 광고된 것을 보았다. 원유가격의 인상은 5.2%이고 소비자가격은 20%라니 이렇게 둔갑을 해도 너무하지 않은



허구한날 수입개방이니 UR이니 당장 파산될 것처럼 대책회의, 각종세미나, 심포지움에 마스크를 통해 의욕을 상실케하여 목장을 자동 폐업하도록 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외국사람이 아닌 한국의 하늘아래 우리의 행정당국, 유업체, 단체, 학계, 낙농가, 소비자 우리들 자신의 책임때문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 목장은 푸대접해도 좋다는 말인가. 이지경에서 원유를 증산하겠다는 의욕이 어느 누가 생기겠는가. 아니 행정당국에서 증산하라고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영세목장에게까지 배보다 배꼽이 큰 폐수시설구비의 압박과 이전지시등은 원유의 증산은 커녕 내년 이쯤에는 또 1,000개의 목장이 폐업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이며 또 4,000두의 아니 그 이상의 젖소가 도살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금년 목표 5%의 원유증산을 추진해온 낙농육우협회의 애쓴 보람도 없이 전반기를 볼때 전년 대비 91만 9천톤에서 87만 8천톤으로 4%의 원유가 감소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소비는 89만 8천톤에서 92만 9천톤으로 3%가 증가되어 결국은 총7%의 차질이 생겼다. 이 부족분을 댄질하기 위해 8천톤의 외국분유를 들여와 벌써 소진된지 오래며 후반기에 7천톤의 분유를 또 들여와야 한다니 이런식으로 간다면 세계제일의 분유수입국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 하겠는가. 그 분유의 배분을 놓고 자기몫을 크게 하겠다고 아우성인것 같다. 또 무슨무슨 파우더로 둔갑해서 분유가 대량 들어 올것은 명확관화하다. 가래로 막을

뚝을 큰도저로도 막을수없는 붓물이 터지고 있다. 우리의 낙농이 이꼴이 되었는지 걱정이 태산같다. 내나라 내집안 살림걱정을 외국의 누가 속시원히 풀어 줄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땀흘려 노력 한번 해보지도 않겠다는 것인가.

한가정의 살림이 경제가 여의치 않을때에는 안으로 주식비부터 절약 긴축하고 밖으로 모두 땀흘려 수입을 늘리는데 합심함이 일반적인 예이다. 우리낙농도 큰살림이라고 볼때 그와 마찬가지로 이리라. 낙농은 우리나라 식량자원의 보루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꼭 살려야 한다. 우리 인간은 풀의 섬유질을 소화하지 못한다. 젖소는 우리가 이용못하는 산천에 널려 있는 산야초며, 목초며, 그섬유질로부터 우유와 고기로 생산하여 우리에게 모두를 주고 있다.

이생명의 젖줄이 무너지가고 있는 이때 수수방관해야 될일인가. 우리 모두가 지혜를 짜내 잘키워야만 한다. 비장한 각오와 과감한 처방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낙농은 눈을 뻔히 뜨고 고사하고 말것이다.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치유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낙농산업의 한 구성원으로 몇가지 제언한다.

첫째. 목장을 짓누르는 폐수시설에서 해방시켜 주자.

정부와 단체, 유업체 공동으로 폐수시설의 설비를 구체적인 설계와 비용을 저리장기대출 식으로 지원 실현시켜 주기 바란다.

둘째. 분유나 기타 유제품의 수입을 막아주자.

적게 생산해서 적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나 단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농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정책적으로 막아주어야 한다.

셋째. 원유증산목장에 성과금을 지급하자.

각유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낙농의 보루인 목장에 돌려야한다. 사양관리, 위생관리, 질병치료등으로 두당 몇%의 원유가 증산되었다는 보고 확인으로 성과금지급제도를 채택하기 바란다. 산짐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년열두달 하루도 공휴일이 없는 목부에게 타 업종보다 많은 월급이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혜택을 주어야한다.

넷째. 시유의 유통은 직거래제로 전환해야 한다.

목장주가 자신들의 원유를 집유하고 검사, 살균처리 포장한후 중간유통단계를 배제하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므로써 소비자에게 시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목장에 더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가공장의 거대화를 지향하고 지역별로 낙농가 위주의 중간형 우유처리장 즉 낙농협동조합을 명실공히 운영하고 직거래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주저않고 말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분유 수입국으로 전락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한 예로 공해없는 제주도의 초지에서 생산된 원유로 처리가공된 시유는 제주도 뿐만아니라 신혼여행의 부부의 음용은 물론이고 육지로 건너와 고해에 찌든 우리의 식품이 되리라 전망하고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사람대신 비행기 타고 시유가 들어가 판을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낙농에 일임하는 우리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지역의 특성에 맞게 낙농가들에 의해 자신들을 위해 결성한 낙농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소비자와 유통거리를 단축시킨 직거래판매를 과감하게 행할때가 온것같다.

원유의 생산량과 지역의 판매량에 근거한 제품생산량의 조절 즉 원유 수급의 조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낙농은 살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세계의 낙농 선진국들의 한 흐름이다. 그들은 점차 자급의 형태를 채택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멍청이 앉아서 분유수입국으로나 전락하고야 말것인가.

다섯째. 정부는 낙농산업의 계획생산과 집유의 일원화를 실천해야 한다.

원유의 생산량과 지역의 판매량에 근거한 제품생산량의 조절 즉 원유 수급의 조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낙농은 살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세계의 낙농 선진국들의 현 흐름이다. 그들은 점차 자급의 형태를 채택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멍청이 앉아서 분유수입국으로나 전락하고야 말것인가.

우리도 모든 지혜를 모아 묘안을 창출하여 응용 실천하기 바란다. 한편 우리 소비자는 우유가 주식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두개 구입하던 것을 한개 줄이는 지혜속에 가계의 저축에도 보탬이 되고 낙농의 안정적 발전의 작은 씨알이 될것이며 나아가 원만한 원유수급이 성취될 것이며 분유수입이란 물꼬를 쉽게 막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목장에 상실된 의욕을 스스로 찾기에 는 기력이 빠진 이시점에서 주위의 우리모두가 권익을 찾아 주고 대접해주는 그때만이 우리의 낙농은 회생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